

환경청, 대도시 고체연료 사용 금지 대기오염 최대한 억제 위해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3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釜山, 大邱 등 대도시지역에 석탄과 煙타이어 등 고체연료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최근 환경청이 고시한 연료사용 규제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의 모든 산업체에는 고체연료의 사용을 일체 금지시키며, 현재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체이나 목욕탕등 그밖의 설비도 오는 87년 3월까지 보일러 설비를 모두 액체와 기체연료 사용설비로 바꾸도록 했다.

이번에 고시된 고체연료사용 규제 방안은 연료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을 서울, 仁川, 水原, 富川, 始興, 城南, 光明, 安養, 議政府, 南楊州 등 수도권과 釜山, 大邱, 大田, 光州등 대도시로 확대했다.

환경청은 이들 지역에서는 석탄류를 비롯해 코크스, 장작, 煙타이어의 재생 또는 가공된 모든 고체연료의 사용을 규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내에 있는 산업체이나 목욕탕등 사업장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환경청의 이같은 조치는 가정용과 상업용의 무연탄사용량이 해마다 7%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석탄값의 안정에 따라 산업체들도 보일러시설을 B-C油등 액체연료에서 유연탄등 고체연료로 바꾸

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 「外債절감」 본격시행 原油等 原資材수입억제

정부는 외채부담을 덜고 국제수지 적자를 적정수준에서 방어하기 위해 원유, 곡물등 주요수입원자재의 수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申秉鉉부총리는 지난 3월 2일 경제장관회의를 소집, 종합적인 국제수지방어대책을 협의하고 매년 수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原油, 석탄, 곡물, 原木, 펠트 및 古紙, 원면, 원당, 고무, 유지등 10대 원자재에 대한 개별적인 수입억제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원유의 경우 올해 비축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2백만㎘

줄이고, 무연탄수입도 10% 가량 축소시키기로 했다.

저유황유 공급계획확대 輕油 63%, B-C油 52%

정부는 공해방지대책의 하나로 低硫黃油의 보급을 계속 확대키로 하고 올하반기부터 輕油은 전체 공급량의 63%를, B-C油는 52%를 각각 저유황유로 공급키로 했다.

동차부에 따르면, 저유황 경유는 지난 해 하루 6만6천㎘(전체 공급량의 55%)에서 9만3천㎘로, 저유황 B-C油는 하루 8만2천㎘(전체의 40%)에서 11만1천2백㎘씩으로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저유황유공급대상을 輕油는 서울지역의 단독·연립주택 보일러용과 제주도·차량을 제외한 전국의 차량으로 확대했으며, B-C油도 水原, 大田, 光州지역 사업자와 麗川공단, 麗水火力까지 그 범위를 넓혀 저유황유를 사용토록 조치했다.

업종별 자기자본비율 조정 精油業은 23.7%로 상향조정

은행감독원은 여신관리대상 기업의 기업신규투자 및 부동산취득규제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을 조정, 지난 3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 정한 자기자본지도비율은 81~83년 사이 3년간의 기업재무구조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종전 79~81년을 기준으로 하던 자기자본

지도비율을 업계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개정된 자기자본비율중 가장 높은 것은 보관 및 기타운수업으로 55.7%이고, 가장 낮은 것은 수산업으로 10.2%이다. 또 석유정제업은 종전의 13%에서 23.7%로 대폭 상향조정되었다.

새로 조정된 여신관리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業種別 자기자본 指導比率

業種	指導比率
水産業	10.2
鑛石炭業	29.3
金属屬他	40.3
製造業	21.0
食料品	
酪農製品	18.4
통조림	21.9
도정 및 製粉	14.8
빵제품 및 국수	17.9
製糖	18.8
파자	16.7
調味料	24.5
其他	19.7
配合飼料	20.6
飲料品	
증류주合成酒	19.7
麥酒 및 麥芽	20.1
釀酵酒	28.1
清涼飲料	28.9
織維	
編織	17.9
綿紡	16.7
毛紡	19.9
化學織維	18.0
生絲	12.8
織物	17.1
其他	16.7
衣服類	18.3
가죽	17.9
신발류	16.3
製材	14.7
家具 및 裝置物	18.6
종이제품	20.1
인쇄 및 출판	31.3
產業用化學	
產業用基礎化學	27.3
肥料 및 殺虫劑	28.4
플래스틱物質	22.6
其他化學製品	
塗料	26.5

業種	指導比率
醫藥品	32.4
비누 및 化粧品	22.8
其他	25.6
石油精製	23.7
煙炭	17.9
고무製品	
타이어 및 튜브	32.8
其他	18.8
플래스틱제품	20.3
도자기 및 土器	22.6
유리	22.9
其他非金屬鑛物	
構造用粘土製品	28.2
시멘트石炭	25.2
기타	18.9
제1차鐵鋼	17.9
제1차非鐵金屬	21.8
組立金屬제품	
手工具 및 鐵物	22.1
금속가구장치물	22.8
構造物金屬제품	16.2
機械	
機關 및 터빈	19.2
金屬工作	15.7
木工機械	15.7
特殊產業用機械	20.8
기타	23.4
電氣機械器具	
산업용전기기계	23.0
가정용전기기기	19.9
電氣電子부품	24.6
기타	29.9
運輸裝備	
船舶建造 및 修繕	17.6
自動車	17.4
自動車部屬品	17.9
其他	11.5
其他機械器具	
時計	37.9
其他	26.4
樂器	37.8
運動 및 競技用品	20.6
其他	27.1
電氣業	35.0
建設業	18.9
都賣業	

業種	指導比率
一般都賣業	18.8
貿易業	17.0
小賣業	
一般小賣業	24.7
綜合小賣業	18.3
宿泊業	31.9
서비스業	
映画·演藝·興行	30.4
라디오·TV放送	40.3
其他服務	27.2

與信管理制度改善 내용

1. 배경

계열기업군의 재무구조개선 및 과도한 금융의존을 시정하기 위해 74. 5. 29 이래 은행간 협정형식으로 운영해오던 주거래은행제도를 84. 7. 23부터는 금통위규정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그간의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계열기업군을 주력업종 중심으로 전문화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을 개정, 시행키로 함.

2. 주요내용

가. 기준여신의 상향조정을 통한 주거래대상기업의 축소

-기준여신 :

[계열 200억] → [계열 1,000억]
[비계열 100억] → [비계열 제외]

-대상기업 : 1,739개 (161계열) → 715개 (68계열)

나. 여신규제 방식의 단순화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 규제
지표의 일원화 및 현실화

○ 자기자본비율, 대출금비율, 자기자본비율, 차입금비율, 자기자본비율
고정장기적합률 → 자기자본비율

(4개)

(1개)

○ 자기자본비율 업종분류 : 35개 → 91개
기준 : 77~79년간 → 81~83년간
(향후 계속하여 최근 3년치를 적용)

○ 계열별, 기업별 중복관리 → 기업별 관리 - 기업합병, 배당에 의한 주식취득과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 (외국인 투자지분 49% 이상) 등에 대하여는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에 대한 은행감독원과의 사전협의 제도 대체

다. 부동산 취득규제 강화

- 기업이 차입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하지 않도록 지도
- 관리대상 확대 : 기업, 기업주, 계열주(현행 관리대상) 외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포함

라. 계열기업군별 주력업종 위주의 전문화 유도
- 중소기업 사업조정법에 의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에 의한 계열화 업종으로서 지정품목 생산업종, 계열주가비주력업종으로 자진신고한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주력업종으로 선정

- 비주력업종 처분시 처분가액의 200% 해당분을 주력업종 육성을 위해 사용 가능토록 함

- 비주력업종의 확대를 위한 기업 투자 및 부동산 취득 금지

마. 무승인 부동산취득등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 경고, 여신중단(현행 제재수단) 외에 금융상 불이익 부과제도 도입(별표 참조)

- 금융상 불이익 부과내용 : 금리 및 지급보증 수수료 차등 적용

바. 주거래 은행의 기능 전환

- 자금주 공급원 → 정보수집 및 통

	금리	지급보증 수수료
대상금액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 위반금액	좌동
금리 (수수료)	연체금리	원화지급 보증수수료 × 1.5
적용기간	1년이내	1년이내

제기능

- 대상기업체별 전담심사역제 실시
- 협조응자 근거 규정 신설

3. 시행일 : 1985년 3월 2일

精油 5社 안전·보안회의 보안현황 및 사고사례분석

精油 5社 안전 및 보안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3일 油公 蔚山공장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윤대욱 공장장의 주재로 개최되었다.

정유 5사 공장장을 비롯한 각사의 관계부서장 등 17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정유사별 보안현황과 사

고사례분석 및 열관리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정보교환이 있었다.

한편 2년동안 본회의 위원장직을 맡아온 윤대욱공장장은 이날로서 임기를 마치고, 차기위원장에는 극동석유의 김병관공장장이 선임되었다.

23차 정기주주총회 개최

油公 84년도 결산승인

油公은 지난 2월 26일 本社회의 실에서 김항덕 대표이사 사장 주재로 제23차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1984년도 영업결산을 승인하는 한편 남창우 사장실부실장 등 6명의 이사대우를 이사로 선임하였다.

이날 주주총회에 이어 개최된 198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의결에 따라 이사로 선임된 새임원은 다음과 같다.

- ▲ 남창우 사장실부실장(이사)
- ▲ 김태문 사업개발담당이사
- ▲ 이건체 기술개발담당이사
- ▲ 조원천 석유사업기획담당이사
- ▲ 안명주 윤활유담당이사
- ▲ 최동일 공무담당부공장장(이사)

油公, CWF기술도입 계약체결 85년 말 상업화 공장건설 착수

油公은 85년 1월 31일자로 美國의 ARC사(Atlantic Research Corporation)와 벙커C의 대체연료로서 각광을 받게 될 CWF(Coal Water Fuel : 석탄, 물 혼합연료)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정식 체결하였다.

이번 油公의 CWF사업은 석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Energy Mix)를 더

욱 다양화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공고히 구축하여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증진 배양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油公은 1차로 금년내에 연산 3~4만톤(석탄기준) 규모의 준상업화 공장을 울산에 건설하고, 이와 병행하여 현재 정부의 국책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CWF연소실증시험을 위해 油公 울산 정유공



장내의 시간당 68톤(스팀기준) 보일러를 CWF용으로 개조하여, 동력자원연구소, 韓電 및 보일러업체 등과 공동으로 연구 추진하며, 내년말 경에는 연산 50~100만톤 규모의 상업화 공장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CWF는 석탄(70%)+물(29%)+첨가제(1%)로 구성되는 유체연료로서 같은 열량을 기준으로 할 때 병커C油 가격보다 30~40%가 저렴하여 경제성이 뛰어나며, 수송, 저장, 연소시 취급이 용이하여 기존 유류 보일러의 간단한 개조로써 병커C油의 완전대체 또는 병커C油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연한 직접연소에 따르는 과도한 초기 투자부담 및 사용상의 불편성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WF 제조시 전처리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술제공자인 ARC사는 로켓용 고체 추진연료 및 정보교환 수신설비의 개발, 생산 전문업체로서 대체 에너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1979년 美国 내 최초로 美国에너지성(DOE)과 공동으로 CWF(ARC-COAL)를 개발한 아래 CWF기술개발에 선두주

자로서 1982년부터 대량생산(일산 600배럴)에 성공하여 Du Pont Test, 미국전력중앙연구소(EPRI)프로그램 등 美國 각지의 산업용, 제철용 및 발전용 등의 광범위한 연소시험에 공급하여 왔다. ARC가 개발한 CWF(ARC-COAL)는 미국 인더스트리얼 리서치지가 선정한 올해의 새기술, 새상품 100선 중 에너지 동력부문의 신개발품으로 뽑히기도 하였다.

油公 직업훈련생 수료식 기능인력 53명 배출

油公 蔚山공장은 지난 2월 28일 후생관 대강의실에서 박대운 노무부장(훈련원장)과 노동부 울산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장간부 및 관계교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5기 사내 직업훈련생」 53명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다.

이들 수료생은 지난 해 9월에 입소, 학과교육 및 현장실습으로 편성된 총 900시간, 6개월 과정의 석유 정제공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새로운 국가기능인력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수료생

중 성적이 우수한 심필보 훈련생이 노동부 울산사무소장상을, 이두성 훈련생이 공장장상을, 김경식 훈련생이 훈련원장을 받았다.

또한 공장은 3월 4일 같은 장소에서 평균 20대 1의 높은 공개시험을 치르고 선발된 「제26기 사내 직업훈련생」 24명에 대한 입소식을 가졌다.

油公 일부 조직개편 '사업개발담당직 신설'

油公은 지난 2월 26일부로 종합기획실장 산하조직을 일부 개편, 실장산하의 종합기획실장보좌직을 폐쇄하고 사업개발담당이사직을 신설하였다. 사업개발담당이사는 석유개발사업부와 석탄사업부를 관장하며 종합기획실장에게 보고한다.

油公 박사 2명 신규 채용 기술개발부 연구원으로

油公은 지난 3월 1일부로 김태천박사를 기술개발부 CWF 기술담당연구원으로, 나상천박사를 기술개발부 연소담당연구원으로 각각 채용하였다.

김태천박사는 석탄사업부에 파견되어 기술이전관계리더로 근무하게 되고 나상천박사는 파견근무지인 美国 보스톤에서 근무하게 된다.

油公 우수제안에 포상금 탑분임조등 4건에

油公 蔚山공장은 지난 2월 27일 후생관 대강의실에서 윤대욱 공장장

□ 石油業界消息 □

참석하여 우수 제안 4 건에 대한 포상식을 갖고 등급별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1, 2 월 중 제출된 「사용후제안」에 대한 심사결과 4 급 1 건, 5 급 2 건, 6 급 1 건 등 총 4 건이 우수 제안으로 판정되었으며, 특히 탑분 임조의 「하절기 톨루엔분류탑의 부하감소로 원료최대유입」건의 제안은 연간 4 억 2 천만원의 설비개선효과를 가져왔다. 이들 4 건의 제안실시로 공장은 연간 4 억 3 천 2 백만원의 원가절감효과 및 작업능률을 향상이 기대되며, 이날 포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 4 급(포상금 30만원) — 탑 분임조(석유화학생산부) ▲ 5 급(포상금 15만원) — 일사분임조(운영부), 황소분임조(정비부) ▲ 6 급(포상금 7만 5 천원) — 풍차분임조(석유화학생산부)

油公직원 3 명 표창받아 근로자의 날 기념식에서

제40차 근로자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월 10일 蔚山市 신정동 소재 종합체육관에서 蔚山市長을 비롯한 각 기관장 그리고 울산노총산하 2 천여 산업역군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공장 정비부 이영광, 관리부 주상길, 석유정제부 최경남사우가 모범근로자로 선정되어 경남지사, 울산시장, 노총 울산지부 협의회의장으로부터 각각 표창장을 받았다.

무역협회부회장 피선 具平會湖南精油사장



具平會湖南精油사장은 지난 2 월 8 일 무역협회 정기총회에서 무역협회 부회장(비상근)으로 선출되었다.

京仁, 모범사원표창 근로자의 날 맞아

京仁에너지 3월 11일 仁川공장에서 김영찬 공장장을 비롯한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회 근로자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모범사원 3명과 85년도 2월 제안책자 15명에 대한 포상 및 성실한 책임근무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생산부의 김순영 사우에게 공장장의 특별 포상이 있었다.

또한 이날 중식에는 전직원에 대한 특별급식을 제공하고 공장 상황실에서 공장장과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와 회사간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협조를 다지는 노사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수상한 모범사원 및 제안책자는 다음과 같다.

(모범사원 표창자)

◇사장표창 : 최순철(정비부)

◇공장장표창 : 황상인(생산부)

김문화(발전부)

(제안책자)

◇10등급 : 이은상(정비부)

◇13등급 : 김정대(생산부), 등대
분임조(생산부), 황규
대(생산부), 강봉영(정
비부)

◇14등급 : 이은상(정비부)

◇15등급 : 박원덕(생산부), 이상
국 2件(생산부), 무궁
화분임조(정비부), 오
세제(비상계획부), 차
선회(기술부), 이철호
(정비부), 박채규(발전
부), 황선양(발전부),
박정운(정비부)

◇장려상 : 오세제(비상계획부)
이승일(총무부)

京仁 李부사장 해외출장 원유도입계약 체결 위해

京仁에너지 李種學 부사장과 기획관리실 오경석 차장은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말레이지아 국영석유회사인 Petronas 社를 방문하여 Bintulu 원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 4년차 조합원 정기총회 京仁에너지 신용협동조합

京仁에너지 신용협동조합은 지난 2월 18일 仁川공장에서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부회장과 관계인사 그리고 공장장을 비롯한 조합원 대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4년차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82년 5월 창립후 자산 2

억으로 성장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전임이사장에 대한 공로 표창과 모범조합원 표창이 있었고, 12%의 잉여금배당을 확정, 자산 3 억원의 85년도 사업계획안을 승인 하였다.

京仁 全직원에 선물 근로자의 날을 맞아

京仁에너지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양양을 위해 전직원에게 1만원 상당의 등 산용 배낭을 선물하였다. 또한 지난 민속의 날에도 공장근무 전직원에게 푸짐한 선물셋트를 선물한 바 있다.

쌍용사우회, 주택조합결성 적극 권장 85년도 새사업계획 확정

雙龍정유 사우회는 85년도 정기 운영위원회를 지난 2월 6일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84년도 결산안, 잉여금 처분안, 85년도 사업계획안 및 임원개선에 관한 건 등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4개의 의안을 활발한 토의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4개 항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84년도 결산승인

회원이 불입한 회비등 사우회의 총자산규모는 1억 6천 7백만원으로 작년의 1억 2천만원에 비해 약 40%가 증가했고 이 기금으로 183명에게 총 1억 6천만원을 대부, 그 이자수익 1천 6백만원으로 회원의 회

京仁, 독신자아파트 제공 공장근무 관리직 사원에

京仁에너지는 공장근무 일반관리직 대졸신입사원에게 복지 및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독신자아파트를 제공키로 했다.

仁川 노동문화제 특상 京仁에너지 변상회양

京仁에너지 仁川저유소 변상회양은 지난 3월 10일 仁川시민회관에서 거행된 제4회 근로자의 날 기념식에서 仁川市長으로부터 仁川지방 노동문화제 공예부문 특상을 수상하였다.

금 지급을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계속키로 했다.

한편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무주택회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조합 결성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키로 했다.

-임원개선

전임 운영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기 2년의 운영위원을 다음과 같이 새로 선출했다.

▲위원장 : 이일철 총무부장

▲운영위원 : 박정일 경영관리부장, 주찬선 공장업무부장, 홍동표 판매 1부장, 김승정 정유생산부장, 배진 인천저유소장, 유재춘 노조위원장

▲감사 : 김성일 감사부장

▲간사 : 이종진 인사과장

불우이웃돕기 다파희

雙龍공장 여직원회서

雙龍정유 온산공장 여직원회(목련회)는 지난 2월 17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울산시내 오우션호텔 2층 대연회실에서 불우이웃돕기 자선다파희를 가졌다.

잔잔한 실내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한복으로 성장한 20여명의 여직원들이 전통 차와 약식·과일 등을 서비스한 이날의 자선다파희는 사원 가족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몰려들어 대성황을 이루었다.

금년으로 4회째 불우이웃돕기 자선다파희를 개최한 목련회는 이날 목표수익금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수익금 전액은 사내 불우이웃에 전달되었다.

부조리 척결 결의대회 雙龍 온산공장 예비군

雙龍정유 온산공장 예비군 대대는 지난 2월 27일 예비군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식개혁 달성과

부조리 척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4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 채택은 전대원 사우(서무과)의 선창에 따라 참석한 전원이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부조리 척결에 대한 의지를 한층 더 굳게 다졌다.



石油協會 팩시밀리 설치

지난 3월 13일부터 가동

大韓石油協會는 지난 3월 13일 팩시밀리를 설치, 가동하였다.

국내외 어느 곳이든지 송수신이 가능하며, 따라서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회원사등과의 신속한 업무협조가 기대된다.

참고로 회원사등의 팩시밀리 전용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 油 公 : 784-6075
- 湖 油 : 275-1748
- 京 仁 : 757-9317
- 雙 龍 : 273-2170
- 檻 東 : 313-8171
- 石油開發公社 : 779-2973
- 動 資 部 : 720-4634
- 石油協會 : 732-2290

□ 產油國動向 □

英國정부 BNOC 해체 결정

英國정부는 BNOC를 해체하여 기존의 정부주도형 油価정책을 변경하고, 완전경쟁시장에 의한 油価결정시스템을 채택하는 대담하고도 놀라운 조치를 취함으로써 세계석유시장에 충격파를 던져 주었다. 지난 3월 13일 英国의 에너지相 Buchanan Smith는 자국의 원유판매가 기간계약에서 현물시장 중심으로 점차 이동해 가고 있기 때문에 BNOC는 더 이상 시장안정화에 공헌할 수 없고 BNOC의 존재가 아무런 실익도 없다고 밝히면서 BNOC를 해체하고 여타의 다른 기구를 발족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같은 결정이 있기까지 BNOC의 해체설은 지난해 말 이후 석유시장에서 꾸준히 대두되어 왔다. 정부의 공식가격고수 발표 또는 공식유가의 현물시장연계 방침 등이 현물시장에 풍문으로 나돌아, 그때마다 현물유가는 변덕스럽게 등락을 거듭하였다.

당초 英国정부는 석유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공급의 안전 확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BNOC를 창설하였다. BNOC는 생산지분협정(Participation Agreement)에 의거하여 北海의 석유생산회사들로부터 총산유량의 51%를 공식가격으로 구매하

고, 또 다른 공식가격으로 이들 원유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또 BNOC는 정부의 로얄티로서 생산회사들로부터 일정량의 원유를 인수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석유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자 BNOC는 당시의 공식가격을 배럴당 30달러에서 28.65달러로 인하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세계 석유시장은 약세가 거듭되었고 계약고객들이 공식가에 의한 원유구매를 외면하자 BNOC는 어쩔 수 없이 인수한 물량의 대부분을 공식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현물시장에 판매해야만 했다. 원유의 현물판매량이 늘어나면서 BNOC의 무역적자가 누적되었으며 급기야는 지난 4/4분기에 45백만파운드를, 그리고 금년 1/4분기에는 25백만파운드의 손실보조금지급을 議會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BNOC의 적자폭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의회 및 석유업계 일각에서 BNOC의 해체 또는 역할축소 조정문제가 계속 논의되어 왔다. 특히 3월 이후 Brent 현물가격이 1달러이상 하락하는 등 석유시장이 약세로 나타나자 이러한 논쟁은 가열되었다.